

어머니는 부처님오신날에 동네에서 가까운 옹화사엘 간다. 쌀 두어 되와 초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간다. 옹화사는 작은 시골절이다. 곁에서 반 시간 남짓 걸린다.

나의 어머니 뒤에는 봉산택이 뒤따라 간다. 두 분 사이 간격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봉산택 뒤에는 백발이 성성한, 동네서 가장 연만한 점방집 할머니가 뒤따라간다. 간격은 점점 벌어진다. 어머니와 봉산택은 자주 뒤돌아본다. 점방집 할머니는 잔뜩 구부린 허리를 연신 편다. 행복하고 싱그런 행렬이다. 너그럽고 평화로운 한 줄이다. 그들의 얼굴에 초여름 햇살이 내린다. 절에 가는 그들이 부처 같다. 코는 내려앉고 귀는 어둡고 눈은 흐리되 역시 부처 같다.

나도 어릴 때 시골절엔 갔다. 옹화사에 가서 미륵부처님을 뵈고 절을 올렸다. 어머니는 뭐라 뭐라 들릴 듯 말 듯한 말을 중얼거렸다. 나는 그 조곤하고 얼얼얼한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말씀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제일로 간곡한 기도라고 생각한다. 법당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인근 동네서 온 보살들이 미륵부처님 앞에서 모두 다 중얼거렸다. 그 중얼거림은 빛나는 비밀 같은 것이어서 다른 기도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긴 은하 같은 마음 속 말씀이었다. 손가락을 통기는 짧은 시간이라도 부처님을 뵈



불자 세상보기

문 태 준
시인

어머니와 시골절, 초파일 풍경

진(眞)하여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복이 끝없어서 헤아릴 수 없다 했으니, 등골등골하게 뭉들쳐뭉들쳐 웃는 보살들은 기도를 하는 것 자체로써 이미 소원을 원만하게 성취했다. 어머니는 시골절에 가기 며칠 전부터 채식을 했다. 소잔으로 절육의 식단을 차렸다. 식구들의 밥 짓는 양을 줄여 묵은 밥을 두지 않았다. 절에 가기 전에 술에 물을 풀어 목욕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야 갔다. 그 며칠 동안은 다른 사람의 잠못을 입에 담지 않았다. 큰소리로 말하는 법도 없었다. 경전의 말씀처럼, 어머니는 말을 할 때

종(鐘)이나 경쇠를 고요히 두들기듯 했다. 거친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그런 덕에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한 그 며칠간은 낮고 허름한 우리 집이 맑은 시네 같았다. 어머니는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했다. 거울의 얼룩을 빠짐없이 닦아내듯이. 또 어머니는 정해진 집 없이 떠돌며 구걸하는 사람이 우리 집엘 찾아오면 따뜻한 음식을 내어 놓았다. 어느 해인가는 바가지로 들고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이 마당에 들어섰는데 그때에도 어머니는 식구가 함께 먹던 밥상 둘레 한쪽을 그에게 내 주었다.

시골절에서 보살들과 어머니가 절하는 모습은 잊지 못하겠다. 몸과 마음과 호흡을 조심하면서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는 그 모습. 아주 공손하고 지극하게 몸을 무너뜨리며 절을 올리던 그 모습. 절하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절 할 때의 몸은 가장 멋진 물러섬을 보여준다. 옅뜨림은 자기를 항복시키고, 몸과 마음의 인색함을 넘어선다. 그 모습은 서글서글하고, 외관과 내심이 스스로 구족한 것이어서 그 뜻 또한 무량하다.

나의 어머니는 시골의 평범한 노모(老母)이다. 계율에 계합하는 조행(操行)의 덕목을 잘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는 당시 성심껏 신앙한다. 율에도 한결같이 어머니는 시골절에 가고 있을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네 가지 쫄을 주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는 야생의 쌀밥보다 못한 것이라고 했다. 나는 어머니의 그 종교로써, 어머니가 주는 야생의 쌀밥으로써 나의 망념을 견어낸다.

부처님오신날 무렵 어머니의 마음은 위대한 경건이다. 마음의 독실함으로 엮은 큰 책이다. 나는 어머니의 등 뒤에서 조용히 어머니를 뒤따라 가고 싶다. 뒤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큰 감화를 받을 것이다.

불자의 눈

날마다 부처님오신날

올해 또다시 부처님 오신날을 맞는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날이지만, 자칫 그 본래의 의미보다는 형식적인 축제에 그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날의 의미는 반감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화의 길을 가르쳐 주러 이 땅에 오셨다. 반야부의 공사상이나 화엄의 사사무예를 비롯해 팔만사천 대장경의 광대한 경전말씀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를 본질적으로 설득코자 하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서있는 지금 여기의 현실을 직시해 보아야 한다. 오늘날 지구촌의 초고속 변화가 과연 지구인들의 오늘과 내일을 밝고 슬기로운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 생활의 편의와 자본의 위세를 절감하는 가운데 환경오염, 전쟁, 기아 등 부정적 요소들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지구촌 사람들은 그런 질문조차 할 겨를이 없으며 그런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 불교를 포함해 수많은 종교인들이 알다시피 우리는 자비와 평화 역시 이 세계에 얼마나 굳건히 자리잡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낙담의 수준을 결코 넘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먼저 부처님의 뜻을 이 사바세계에 펼치는 여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감을 다시금 깊이 곰씹어 보아야 한다.

나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열심히 실천공행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살피고 또 살피야 한다. 부처님의 이들을 방자해 자기를 위로하고 호사를 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 보아야 한다.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뜻을 자기내면에 제대로 심지 못한다면 불교는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종교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 불교교단과 각 종단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으레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든지 중생은 누구나 본래 부처라든지 하는 차원 높은 법문을 사회를 향해 떠벌리면서 대장 교단내외에 부처님의 지혜, 자비 평화의 이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과연 누가 공감하고 부처님 법을 따를 것인가.

불교적 이념이 종단적으로 융해되어 있지 아니한 종단은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없는 법이다. 끝으로 불교적 이념을 우리 사회에 심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제문제들 남의 볼 볼 해서도 안되며, 자기이익을 위해 어설픈게 사회운동이나 봉사를 흉내내서도 안된다. 불교적 이념을 구체적인 시민운동으로 활발히 전개해 나갈 때 지상정토와 불교포교는 저절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들려주려 하지 말고 하나라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같은 우리 내적인 변화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불교는 우리 사회에 더욱 발붙이기 힘들어질 것이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도 나날이 퇴색되어 갈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12. 강의석군 사건의 의미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강제 예배에 반발해 고교생 자신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강 군이 처음이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은존해 있는 종교 관련 청소년 인권사각지대를 고발한 셈이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세심스럽게 생각할 계기도 되었고, 과연 헌법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건 초기 국민들은 종교사회의 비교육적·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놀라면서도 종교계의 관행이 쉽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그 배경까지 의심하며 이해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어린 고등학생이 어른들도 견디기 어려운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고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 군의 3개월여에 걸친 일관성 있는 호소와 투쟁, 그리고 그 파급효과를 지켜보면서 언론들은 그를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에 비유하며 극찬하기도 했다.

2004년의 대광고 사건을 다시 더듬어 보자. 6월 16일 강제 예배 반대 ‘교내방송’, 서울시교육청 앞 ‘1인 시위’, 7월 8일 ‘제작통보’, 국가인권위원회에 ‘기본권 침해 진정’, 법원에 ‘퇴학무효 소송’, 8월 10일 단식, 9월 1일 ‘퇴학무효가처분 결정’, 9월 25일 학교측 ‘예배 선택권’ 약속으로 단식 중단, 10월 16일 학교의 약속 불이행으로 1주간 단식 재돌입, 12월 16일 서울대 법대 수시 입학, 그리고 2005년 1월 2주간 청소년 인

권과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부산-서울 간 ‘국토대장정’, 그해 10월 대광고와 서울시 교육청 상대로 ‘종교강요와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까지, 일련의 사건을 되돌아 보면, 또 무엇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했던 것일까.



학내 종교자유실현을 촉구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기자회견 모습.

하고 있다’고 자답하고, 개인의 종교자유가 종교학교라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면서 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육현장의 무모

이상은 바란다고 해서 꼭 이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라지 않으면 절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한다. 무슨 말을 더 보낼 수 있을까. 참으로 어린 학생답지 않은 면모다. 그렇게 다져진 문제의식과 옳다는 확신이 섬뜩해 하지 않는 유연성과 포기를 모르는 끈기를 뒷받침했던 것일 게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강의석 군이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데는 심적으로 든든한 후원자였던 부모님과 교목 선생님이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강 군 부모님도 처음에는 문제를 제기하면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고 힘들어질 테니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화해, 단식, 제단식, 소송 등 아들의 투쟁이 얼마나 안쓰러웠는가. 고등학생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45일간의 단식으로 평소 70kg이던 체중이 50kg으로 줄어 탈진 상태로 몸골이 앙상하던 사진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며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을 안으로 새겨야만 했던 부모의 마음이 짐작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정작 일이 크게 벌어지고 나서는 오히려 강 군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주었다고 한다. 강 군의 부친은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원치 않는 학생에게 예배 참석을 강제하지 말아달라”는 의석이의 요구는 정당하다. 기독교인에게 염불을 외우라 면 받아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자식에게 그만두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년 전 강의석 군 사건은 인권감수성, 사회개혁 마인드, 회피하지 않는 당당함, 부모의 강력한 지지와 격려 등 모든 요인이 어우러져, 우리 사회에 근래 드물게 학생인권과 국민 기본권을

은 몸으로 일깨워준 시민운동의 표본이 아닌가 싶다.

공공이익 위한 신념·끈기...국민 기본권 온몸으로 일깨워

우선 개인만의 이해보다 사회전체의 공동 관심사를 자신의 화두로 삼은 점이다. 그래서 혼자 문제만 제기하고 학교를 떠난다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 대학입학이 그 무엇보다 우선인 고3 수험생이었기에 강 군의 문제제기가 역설적으로 더욱 순수하고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다. 일단 목표가 설정되고 나서는 자신과 사회가 함께 얽혀 있는 여

함과 아만성에 대해 고민을 거듭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기 위해 찬송 때 일어서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죽은 정신’과 ‘비겁한 인간’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상처인지 직접 체험한다.

40여 일째 단식하던 강 군은 “너무 배고프고, 먹고 싶다. 그렇지만 종교 선택권은 나의 식욕을 희생시킬 가치가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거룩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 세계를 장식하는 또 하나의 명서 출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석가모니 부처님과 불교를 증득한 수 많은 붓다님들은 유무를 초월하여 무아 속 절대 세계에 빛의 존재로 여여히 계시며, 사후세계와 지옥·극락 그리고 육도윤회는 존재한다.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거룩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 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이다
영산불교 현자지에서 출간한 세 권의 서적에 대한 총평
• 세 권의 서적은 21세기 최고의 종교인 불교의 그랜드 비전을 응시할 수 있는 광대한 명안(明眼)을 구축하게 해줍니다.
• 인류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우주 최고의 종교로서 불교가 갖춘 진면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 전세계 모든 영성세계와 종교명사서적이 지향해야할 총체적 가르침의 시금석(Touchstone)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구입문의 : 춘천 현지사 본사 Tel 033)243-1787,1795 / Fax 033)243-4371 부산 현지사 분원 Tel 051)554-5150, Fax 051)556-5150 / 메일 hyunjigong@hanmail.net